

“삼성전자 광주공장 냉장고 생산량 증대 노력”

NEWS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강기정 시장, 금타·기아 이어 광주사업장서 소통 관세정책·협력기업 상생 모색...“지역경제 버팀목”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삼성전자주 광주사업장을 찾아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 시장은 앞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산업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을 파악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책 마련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강 시장은 이날 박성호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주요 관계자를 만나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지역경제와 가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전제품 글로벌 생산전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냉장고 구모별 생산물량 해외 이전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됐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매년 수시로 진

행하던 물량 조정으로 급등한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냉장고 20만~30만대의 멕시코 공장 이전을 검토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관세 강화 정책의 방향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국내 경기침체, 지역사회 여론 등을 감안해 광주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물량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성호 부사장은 “광주사업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광주사업장은 삼성전자 스마트가전의 핵심 기지이자 글로벌 기술혁신의 거점이다”고 소개했다.

박 부사장은 이어 “자동화, 표준화, 디지털화된 3가지 방향으로 라인 최신화 작업이 곧 마무리된다. 현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생산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줄지 않았고, 기술·제품·품질의 혁신과 협력사 상생, 생산물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 관세정책 등 외풍을 막기 위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주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오랜 기간 광주경제의 버팀목이다”며 “삼성전자에서 지역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준 만큼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우려가 큰 광주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광주시도 삼성전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담회 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제1캠퍼스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산제품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구축 중인 최신 생산라인 조감도 등을 살펴봤다.

한편 광주시는 미국 관세정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산업 경쟁력강화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가전산업, 자동차산업 등 수출산업 전반에 대해 종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
양동민 기자 yang00@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광산구 삼성전자 그린시티 1캠퍼스를 방문해 미국 트럼프 2기 관세 강화에 따른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제품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관광공사 전시 6개, 산업부 지원사업 선정

역대 최대...국비 21% 증가한 3억2700만원 확보
MICE·관광 연계 ‘2025 광주방문의 해’ 성공 기대

광주관광공사 주관 6개 전시회가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광주푸드위크(5월29일~6월1일), 광주미래산업엑스포(6월25~28일),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7월 9~11일), 광주 ACE Fair(8월28~31일), AI TECH+(10월15~17일), 광주메디뷰티산업전(10월30일~11월1일) 등 6개 전시회다.

이번 선정 결과는 지난 2005년부터 광주관광공사(전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산업부의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래 최대 규모로, 국비 확보액 3억2700만원도 전년도 2억7000만원보다 2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지역신규전시회로 최초 선정된 ‘광주푸드위크’는 ‘Food+Tea+Cafe’라는 콘셉트로 K-Food 글로벌 시장

확장에 기여할 광주식품대전과 광주주류관광페스타가 동시 개최돼 로컬푸드와 주류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국제푸드장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모빌리티, 뿌리, 가전·로봇 및 드론 산업을 총망라해 개최되는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휴머노이드 특별관’을 조성, 최근 각광받고 있는 로봇산업을 새롭게 조명해 볼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은 해상풍력, 수상 태양광, ESS, 수소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기술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며, 광주형 융복합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로의 도약을 시도하는 ‘광주 ACE Fair’는 산업전시회와 더불어 상담회, 축제, 페어, 어워드가 결합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AI TECH+’는 국내외 AC/VC 초청 및업 프로그램 확대는 물론, 국제 인공 지능 컨퍼런스인 AICON과 인공지능 기술세미나가 동시 개최돼 최신 인공지능 트렌드가 공유될 예정이며 ‘광주메디뷰티산업전’은 국내 유일 의료와 뷰티가 결합된 전시회로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웰니스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광주 트래킹 명소인 무등산 둘레길, 호수생태공원 등을 체험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MICE 레저시 확산에 기여한다.

광주관광공사 김진강 사장은 “이번에 확보된 국비를 주권전시회의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수출상당회 등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광주의 특화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MICE와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2025 광주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 시민이 인정한 ‘찐맛집’ 50곳 추천

광주시는 ‘미식의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 광주의 현저인이 인정한 찐맛집이 선정됐다. 10일 발표했다.

올해 광주맛집에는 보리밥·육전·돼지갈비·꽃게장·빈대떡·생고기비빔밥 등 ‘미식

1차 심사는 음식 전문가·학계·관광공사·소비자 등 광주맛집평가단이 음식의 맛·차림새, 식재료, 가격의 적정성, 서비스, 분위기 등을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했다. 2차 심사는 광주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 ‘광주온(on)’을 통해 시민 5526명이 참여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희망입니다!

복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드림 (Dream) 적금 우대이자 지원
-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시장매니저 지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 종합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신성장지원센터 조성
- 테마별, 권역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광주광역시북구

전남 관광두레 센터인력 모집 27일까지... 협력 PD 등 5명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과 주민사업체 육성·지원, 지역특화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2025년 전남 관광두레 센터인력’을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 스스로 로컬의 고 유자원을 활용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발굴하고 상품화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5명으로 협력PD 3명, 전남PD 2명을 선발한다. 선발방법은 1차 적격 공고상 서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심사와 2차 심층 면접심사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으로 협력PD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PD 졸업자이고, 전남PD는 관광 분야 사업 경험자 및 창업지도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이에 준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 해당된다.

선발된 센터인력은 목표,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강진 등 11여개 지역에 소속된 주민사업체 36개를 권역별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466억 투입 어업인 생활안정·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총력

전남도가 올해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66억원을 투입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466억을 들여 어업 기반시설, 어선원·어선재해보험, 친환경 어업 환경개선 등 17개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분야별 어업기반시설 조성에는 203억 원을 투입해 인양기와 부진교, 어업인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인양기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어선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장비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교는 어선이 접안할 때 어업인의 승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항·포구에 어업용기재 공동 보관과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편의시설도 조성해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어업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4억 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3t 이상 어선에서 모든



자연재해 발생시 사용되는 인양기 모습.

어선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어선 재해보험은 어선이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복구하도록 지원하며, 어업인 안전보험을 통해 어선·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어업을 위한 어업환경 개선 사업은 179억원이다. 어업경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를 보급하며, 어구 보증금제 실시로 사용이 끝난 페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고, 해파리,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을 구제해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